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82> 부처나 조사도 원수처럼 보라

선가에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고 하였으니 나무로 만든 부처를 불살라 땀감으로 쓰고 아기 석가모니를 때려잡아 개밥으로 던져 주겠다고 한 선사가 나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 이 뜻은 부처나 조사에 대한 집착도 떨치라는 말이다. 공부가 무로익어 부처나 조사의 경계에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경계마저 뛰어 넘으라는 것이다. 그 경계에조차 '나'와 '부처'라는 미세한 탐욕이 깃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 경계마저 없어져야 참 부처요 대장부라 할 수 있다. <선가귀감> 80장에서 말한다.

佛如冤者 結上無風起浪也 有求皆苦者 結上當體便是也 不如無事者 結上動念即乖也 到此 坐斷天下人舌頭 生死迅輪 庶幾停息也 扶危定亂 如丹霞燒木佛 雲門喫狗子 老母不見佛 皆是摧邪顯正底手段 然畢竟如何.

'부처나 조사도 원수처럼 보라는 것'은 첫머리에서 말한 '바람 없는 큰 바다에 거친 풍파 일으킨 것'이라고 한 말을 매듭짓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는 모두 괴로움'이라고 한 것은 "그 밑바탕에서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한 말을 매듭짓는 것이며, '아무런 애도 쓰지 않느니라 못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나오는 일도 깨달음의 근본자리에서 보면 바람 없는 큰 바다에 쓸데 없이 거친 풍파를 일으키는 헛된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는 모두 괴로움'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해진 팔만사천법문이 깨달음에 다가가기 위한 임시방편인줄 모르고 그것에 얽매어 알음알이를 내고 그것이 옳은 법이라고 시비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비와 분별이 사라진 마음의 당체(當體) 그 밑바탕에서는 세상의 모든 법이 부처님 법으로서 같아지니 모든 것이 옳은 것이 된다. 이 당체(當體)를 벗어나 한 생각 움직이면 바로 근본 뜻에 어긋나니 '아무런 애도 쓰지 않느니라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학천연(丹霞天然 739~824) 선사가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헤맸사라는 말을 목격 되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라 방에 불을 피우고자 하였으나 나무가 없었다. 마침 나무로 만든 불살라 있기에 도끼로 쪼개 불을 때버렸다. 뒤늦게 이 일을 안 절 원주가 노발대발하자

면 그 아기를 몽둥이로 때려잡아 개밥으로 던져 주고 세상을 태평케 했겠다" 이 말을 전해들은 선지식들이 "아! 운문이야말로 나 홀로 존귀하다는 유아독존의 뜻을 잘 설명했구나. 과연 부처님의 제자답다"라고 칭찬하였다. 이것이 운문 스님이 부처를 때려잡아 개밥으로 던져 주겠다고 하던 '운문끼 구자(雲門喫狗子)'인데 이 이야기는 <선문염송(禪門拈頌)> 1권에 나온다.

부처님이 사위성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물밑듯이 물러나왔으나 성 동쪽에 살고 있던 한 노파는 부처님을 보지 않으려고 문을 닫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자 노파의 손가락 끝에서 부처님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이 문을 닫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노모불견불(老母不見佛)'인데 이 이야기는 <오등회원(五燈會元)> 1권에 나온다.

노파의 손가락 끝에 나타난 부처님은 누구라도 저마라의 성품에 다 갖추어져 있는 '자성불(自性佛)'로서 참 부처님이다. 손가락 끝에서 부처님이 나타나는 까닭은 노파가 모든 집착을 벗어나 노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가 참 부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 부처가 아닌 형상으로 나타난 석가모니 몸에 집착하고 그가 한 말에 집착하여 참 부처를 보고 찾으려 한다면 얼마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4>

정신분석과 불교-4

프로이트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증상과 치료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하나하나의 사례가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이론을 발견하고 정립하는데 커다란 계기로 작용함은 물론 증거도 되었다.

프로이트가 환자의 증상을 대하는 자세는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 수행자의 모습과 흡사하다. 프로이트는 환자의 증상을 앞에 놓고 "이 뭣고" "이 뭣고" 하며 그 심리적 기제를 풀 때까지 의문의 피리를 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수수께끼를 풀고 나면 회열을 느끼며 그 원리를 이론

그리고 짚는다.

프로이트는 초기에 최면으로 노이로제 증상을 치료했다. 그러나 최면 치료는 환자의 잊혀진 심리적 사건을 기억해 내고 감정을 발산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문제의 원인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고심하던 프로이트는 "자유연상기법"을 발견해 냈다. 환자 자신이 그 시간의 주제를 선택하여 무엇이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프로이트는 환자가 제시하는 무의식적인 내용의 조각을 풀고 나면 회열을 느끼며 그 원리를 이론

환자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유연상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통찰하는 위빠사나와 유사

화하고 공식화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 덕분에 정신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프로이트처럼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고도 비슷한 증상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이트의 치료 작업과 간화선 수행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간화선에서는 인생이라는 일대사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화두를 참구하는 반면, 프로이트는 환자의 심리적 문제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화선에서는 스승이 화두를 제시하고 수행자 자신이 참구해 가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프로이트가 화두(문제)를 참구한 뒤 거기에 언어로 환자에게 알려 주는 방식이다. 환자의 역할은 화두(문제 증상의) 제공자로서 끝날 뿐이다. 정신분석에는 세 가지 치료 규칙이 있다. 내담자의 자유 연상, 분석가의 '고르게 떠 있는 주의(evenly hovering attention)',

다. 둘 다 깨어서 작업 동맹을 맺으며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자유연상을 할 때 분석가는 '고르게 떠 있는 주의(evenly hovering attention)'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특별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자가 말하고 있는 것, 보이는 것, 그리고 분석가의 내부에서부터 떠오르는 것 등 이 모든 것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인다. 이는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사]를 매순간 바로 거기서' 통찰하는 위빠사나 수행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주체자가 문제를 느끼는 당사자인 환자가 아니라 치료자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위빠사나 수행은 무상·공·무아를 체험하는 반면, 정신분석에서는 환자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는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윤장대(輪藏臺)

예전 율문사에는 보물 제684호로 지정된 윤장대(輪藏臺)가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윤장대 중 가장 오래된 예전 율문사 윤장대는 높이 4.2m, 둘레 3.3m의 대형 윤장대로, 고려 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마루 밑에 회전축의 기초를

놓고 윤장대를 올려놓았으며, 윤장대 지붕 끝을 건물 천장에 연결했다. 불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1기씩 놓여 있는 화려한 팔각정자 형태를 하고 있다. 아랫부분은 팽이모양으로 뾰족하게 깎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난간을 두른 받침을 올린 후 8각의 집모양을 얹었다. 8각의 집모양에는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각 면마다 8개의 문을 달았다. 문은 좌우로 구분되어 4개의 문에는 꽃무늬 창살이 다른 4개의 문에는 빛살무늬 창살이 정교하게 꾸며져 있다. 문을 열면 8면에 서가처럼 단이 만들어져 경전을 꺼낼 수 있도록 하였다.

윤장(輪藏)은 전륜장(轉輪藏)의 준 말이다. 전륜장(轉輪藏)이라고도 한다. 대장경을 소장해 두는 곳이란 뜻의 윤장대는 경전을 담은 대층감(大層龕, 서가의 중심에 돌아가는 기둥을 세워서 8면의 서가를 돌리도록 만들어져 있다.

중국 양나라 쌍림대사 전홍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한다. 애초에는 승려들이 경전 등을 보관하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팽이처럼 회전하는 구조를 꾸렸는데, 후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중생을 위해 돌리는 것만으로도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김지연 기자

우리 축산물 애용으로 가족 건강 지키고 축산 농가 살리자

우리 축산물의 사육과정을 알게 됨으로써 안전성을 인식하고 친근감을 가질수 있도록 직접 목장을 방문함으로써 소, 돼지, 닭 등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체험견학입니다.

- ◆참가자: 축산물 생산과정을 견학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분들의 노고를 직접 느끼고 우리 축산농가를 바로 알고자 하시는 분들!
- ◆일시: 2007년 8월 24일(금) 09:00~20:00
- ◆장소: 평창 영월 축협 생축장(평창읍), 축산과학원 한우 시험장(대관령)
- ◆출발시간: 2007년 8월 24일(금) 오전 7시
- ◆신청방법: 전화 또는 팩스신청 ☎ 02)738-5586, 5568 / 팩스 02)738-7576
- ◆신청마감: 2007년 8월 21일(화)까지 (선착순 120명)

● 주관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주최 :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후원 : 농림부

미래를 여는 행복한 가정상담소 · 이혼예방센터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의 터전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모든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가정과 행복한 사회(정도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행복한가정상담소 ☎ 02)735-0406 ● 이메일 : kwba0518@hanmail.net
이혼예방센터 ☎ 02)735-0407 ● 상담시간 : 월~금 10:00~18:00

행복한 가정상담소 · 이혼예방센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014호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금 강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대승기신론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 ◆모집대상: 스님, 일반인 ◆통신생: E-mail 통신 가능
- ◆모집인원: 약간명 ◆학 기: 2학기
- ◆개강일시: 2007년 9월 6일 오후 2시
- ◆장 소: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면목역, 상봉역)
- ◆전 화: 02)496-3952~3

<무료 명상치료 안내>

중풍을 제외한 모든질병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불교전문강원 임제선학원